

# 원희룡 장관,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

## -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앞장서는 혁신적인 조직관리를 당부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3일(월)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하였다.
- 원 장관은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사장에게 “지금은 국토·SOC의 디지털화·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로, 현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신임사장의 책임이 막중하다”라고 당부하면서,
  - “LX의 핵심사업인 디지털트윈·국토·지적·제조·사·지하공간·통합지도 작성 등은 공공행정의 혁신, 신산업 창출,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- 또한, “최근에 사우디와 체결한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은 우리의 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”라고 강조하면서,
  - “이를 잘살려 제2, 제3의 대형 디지털사업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데 사장으로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줄 것”을 덧붙였다.
- 마지막으로 “최근 공사 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, 디지털 트윈·국토 등 국책사업과 민간의 지적측량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투자에 필요한 결단은 과감히 시행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3. 11. 13.

국토교통부 대변인